



## 크림류

유액, 크림, 오일



### 01

#### 제품에 대하여

- 보습이나 유연을 목적으로 피부에 수분, 보습 성분, 유분을 공급하는 스킨케어 화장품이다. 얼굴이나 손뿐 아니라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
- 유액과 크림은 유분, 수성 성분, 계면활성제, 킬레이트제, 방부제, 향료 등을 함유한 에멀전으로, 유액은 크림보다 유분량이 적고, 유동성이 높다.
- 유분으로는 바셀린, 스쿠알렌, 유동파라핀, 올리브유, 호호바유, 라놀린, 지방산, 고급알코올, 실리콘 오일 등이, 수성 성분으로는 보습제(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등), 알코올, 물이 사용된다.
- 베이비오일이나 미용 오일 등은 미네랄 오일이나 올리브유와 같은 유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선크림은 파라메톡시케이피산 유도체 등의 자외선 흡수제나 산화아연, 산화티탄 등의 자외선 산란제를 10% 전후 함유한다.
- 약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품은 사용 목적에 따라 항염증제(글리시리진산, 알라토인 등), 활력제(비타민·아미노산유도체, 동식물추출물 등), 미백제(알부틴, 코지산, 비타민C 유도체 등), 각질용해제(요소 등), 캠퍼 등이 배합되며, 의약품외에 해당한다.
- 캠퍼의 배합량은 의약품 크림류에서 1% 이하라고 생각되지만, 캠퍼가 유효성분의 주체일 경우(살갓이 튼 곳, 바르는 감기약 등)는 5% 이상 함유한 제품도 있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바르는 약은 25% 정도 함유한 제품도 있으므로 포장이나 설명서의 기록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구 노출



- 입 안의 물질을 제거하고, 입을 행군다.

#### 즉시 진료

- 경련 등의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 기침 등 잘못 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도 일반의약품을 마신 경우, 캠퍼를 함유한 약용 크림을 몇 모금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약을 위한 진료**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경과 관찰

- 일반의약품을 핥기만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
- 캠퍼를 함유한 약용 크림을 핥거나 한 모금 마신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
- 캠퍼를 함유하지 않은 약용 크림,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크림, 오일, 유액을 잘못 섭취했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



### 흡입한 경우



-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상 흡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눈을 씻는다.

**즉시 진료** 눈 뜨기 곤란한 경우,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

**만약을 위한 진료** 세안 후에도 통증, 충혈이 있는 경우



### 피부 노출



-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상 피부에 묻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캠퍼 함유 제품을 대량 섭취한 경우는 캠퍼에 의한 중독을 고려해야 한다.



### 경구

#### 【캠퍼 비함유 크림, 유액, 오일】

- 소량 섭취 시 보통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약하다.
- 대량 섭취한 경우에는 일과성 구역질,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잘못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일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 【캠퍼 함유 제품】

- 핼거나, 소량 마신 정도일 때는 소화기 자극 증상(구강~상부 소화관의 작열감, 구역질, 구토).
- 섭취량에 따라 소화기 자극 증상뿐만 아니라 중추 자극 증상(흥분, 경련 등)이 일어나며, 이후 중추 억제에 의한 호흡부전, 혼수상태가 나타난다.
- 캠퍼는 보통 섭취 후 5~15분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다. 정점은 90분 이내이지만, 크림은 유분에 용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좋고, 증상이 빠르게 발현할 가능성이 있다.



### 눈

- 자극은 있지만, 특별한 장애는 보고된 바 없다.

크림은 약한 소화기 자극물로 분류되며 소량 섭취 시 보통 영향은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약하다. 대량 섭취한 경우, 유분에 의한 일과성 구역질,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캠퍼 함유 제품을 대량 섭취한 경우는 캠퍼의 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캠퍼

중독량과 치사량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체중 1kg당 30mg 이상 섭취 시 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 경구

【금기】오일의 경우, 토하게 하지 않는다.

【이유】화학성 폐렴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

- ① **제거:** 입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뱉게 한다.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 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닦아낸다.
- ② **행균:** 물로 입 안을 행구고 가글한다.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 ③ **수분 섭취:** 오일의 경우 적극적인 수분 공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억지로 마시게 하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밖의 제품은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다.



### 눈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물로 씻는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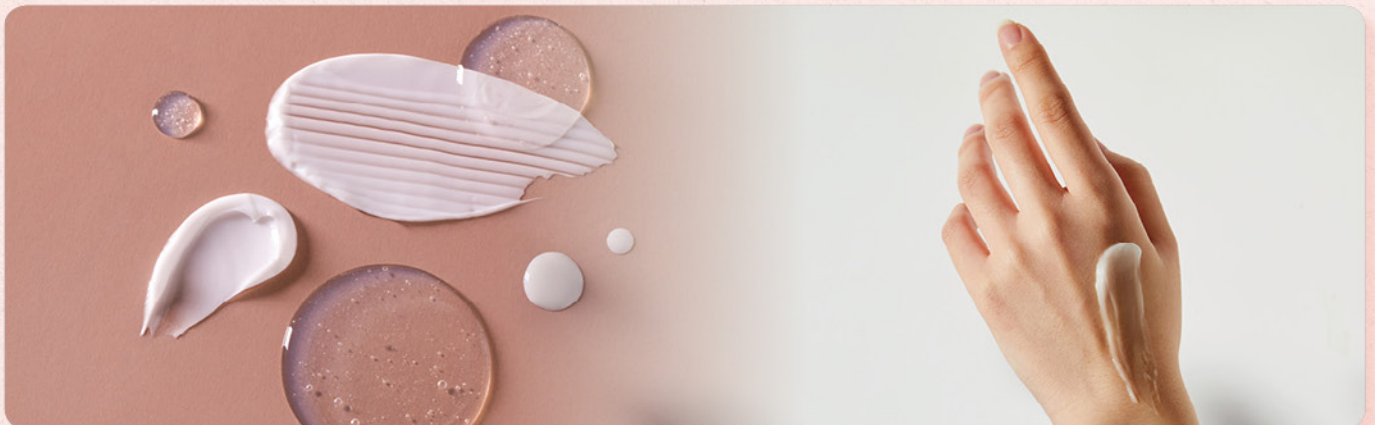


## 체내 동태

### 캠퍼

【흡수】 소화기에서 잘 흡수된다.

【배설】 폐에서도 배설된다(호흡 냄새로 진단 가능).





## 국외(일본중독정보센터) 사고사례

**연간 건수** 약 600여 건(일반 95%, 의료기관 3%, 기타 2%)

**환자 연령층** 1세 미만 39%, 1~5세 57%, 65세 이상 3%, 기타·불명 1%

**사고 상황** 소아나 치매가 있는 고령자의 잘못된 섭취 99%, 기타·불명 1%(치매가 있는 고령자가 대량으로 먹은 경우)

**증상 출현율** 6%(구토, 기침 소리, 구역질, 설사 등)

### 【1986~2009년까지 24년간 파악한 소아(12세 이하)의 사고사례】

- 화장수 이외의(화장수를 비롯하여//) 기초화장품과 선크림, 선크림용 화장품의 합계 172건 중, 중대한 사례는 2건으로 모두 오일(베이비오일, 선오일)을 잘못 마신 사례였다.

### 【1986~2010년까지 25년간 파악한 고령자(65세 이상)의 사고사례】

- 기초화장품에서 크림 18건, 유액 11건, 기타 기초화장품 3건, 선크림, 선크림용 화장품 1건 중, 중대한 사례는 크림의 잘못된 섭취에 의한 소화기 증상, 졸림이 1건 있었다.
- 캠퍼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의 외용약(크림)에서는 15건 중 6건이 중대한 사례로, 경련이나 부정맥, 호흡 정지 등이 나타나,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사례: 87살, 치매가 있는 고령자가 가벼운 동상이나 살갗이 거칠어질 때 사용하는 약(캠퍼 함유)을 용기에서 꺼내 20~30g가량 잘못 섭취했다. 2시간 30분 후 경련이 일어났다.

### 문헌 보고 사례

- 캠퍼를 함유한 연고를 4세 유아가 대량으로 삼킨 후, 5시간 후 구토했다. 이후 증상 없이 회복한 듯 보였다가 4시간 후에 갑자기 강직성경련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Ruha AM, et al.: Acad Emerg Med 2003 ; 10 : 691).

## 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

※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

